



IMF 외환위기를 다룬 영화 ‘국가부도의 날’ 주연을 맡은 김혜수. 24일 서울 압구정CGV에서 열린 영화 제작발표회에서 그는 “1997년 당시를 떠올리면 꽤 부끄럽다. 성인이였는데도 철없는 어른으로 살았다”면서 남다른 책임감으로 영화를 촬영했다고 말했다. 김진환 기자 kwangshin00@donga.com

영화 ‘국가부도의 날’로 돌아온 김혜수

시나리오 읽고 피가 거꾸로… 꼭 만들어야 할 작품이었죠

IMF 때 난 철없는 어른…남일로 치부했었죠
전문 용어 수두룩…경제 전문가한테 과외도
조우진에게서 불꽃 봐…환상의 시너지 발현

“위기가 닥치더라도 원칙과 소신을 지킨다면 재앙이
올까요?”

배우 김혜수(48)의 반문이다. 거창하게는 국가적인 위기부터, 좁게는 삶에서 직면하게 될 숏한 위기를 슬기롭게 해결하는 길은 ‘원칙을 지키는 일’이라는 이야기다. 갑자기 위기와 소신, 원칙 같은 무거운 명제를 꺼낸 이유는 새 영화 ‘국가부도의 날’(감독 최국희·제작 영화사집)의 영향이다. 1997년 우리 사회에 암흑을 드리운 IMF 외환위기를 다룬 영화는 불과 21년 전 일어난 생생한 현장, 미처 몰랐던 협상의 막전막후를 스크린에 옮긴다.

개봉에 앞서 24일 서울 압구정CGV에서 열린 제작보고회에서 만난 김혜수는 “내가 꼭 출연하지 않더라도 이 작품은 반드시 만들어져야 하고, 많은 관객이 보도록 재미있게 만들어야 하는 작품이었다”고 했다.

●“시름, 상실, 박탈, 두려움을 생생하게 표현하고자”

꾸준하면서도 과감한 연기활동으로 여러 히트작을 내놓은 김혜수는 최근 좀 더 대담한 도전에 나서고 있다. 스틸러 ‘차이나타운’과 ‘미옥’은 물론이고 코미디 붐을 다시 일으킨 ‘굿바이 싱글’도 김혜수로부터 탄생했다. 이번엔 대다수 국민의 기억에 ‘가까운 현대사’로 남아있는 외환위기의 이야기다. 그는 “각별한 책임감”을 느꼈다고 했다.

“국가부도를 일주일 앞두고 벌어지는 이야기라는 설정 자체가 매혹적이지만, 시나리오를 읽을 땐 정말 피가 역류하는 느낌이었다. 외환위기 때 비공개 대책팀이 있었다는 기사 한 줄에서 출발한 영화다. 여기에 상상력을 가미한 가공의 이야기라는 걸 알면서도 맥박이 빨라지고 화가 났다. 내가 출연할 수 있나 없나를 떠나 꼭 만들어야 하는 영화다.”

‘국가부도의 날’은 국민 80%가 증산증이라고 믿고 살던 1997년, 대기업 연쇄부도와 금융기관의 부실로 인해 순식간에 벌어진 국가부도 위기의 일주일일 담는다. 김혜수는 먼저 위기를 감지한 한국은행 통화정책팀장 한시현 역이다. 정확한 데이터로 위기를 예측하면서 국가의 위기를 국민에 알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인물. 하지만 그의 소신은 번번이 여러 정치적인 이유로 가로막힌다.

김혜수는 “한시현은 초지일관 원칙대로 움직이는 인물”이라며 “이런 사람이 많았더라면 그 시대를 살아낸 현재의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 궁금했다. 신념과 소신이 일치하는 뜨거운 심장을 가진 인물이라는 데에 매력을 느꼈다”고 했다.

영어대사 분량도 상당한데다 경제 전문 용어를 능숙하게 구사해야 하는 까닭에 김혜수는 촬영을 앞두고 ‘경제

공부’에 집중했다. 경제전문가로부터 몇 차례 집중적인 과외도 받았다고 했다. 그런 김혜수도 외환위기를 겪은 세대다. 당시를 떠올릴 때면 “꽤 부끄럽다”고 했다.

“성인이였는데도 철없는 어른으로 살았다. 그 땐 대중문화가 호황이고 여러 변화가 이어지니 좋은 줄로만 알았다. 나라에 큰 일이 생겼는데도 실감을 못했다. 난데없이 위기가 닥쳤고, 당시 정부에서 제대로 된 정보를 주지 않은 실책 때문일까. 내 문제가 아닌 것처럼 치부했던 것 같다.”

때문에 김혜수는 이번 영화에 더 책임감을 가졌다. 외환위기 탓에 직장을 잃고 가정이 해체된 상처를 지닌 이들이 여전히 당시를 뚜렷이 기억한다는 사실도 그에게 책임감을 지웠다.

“많은 개인과 기업에 비극이 닥친 시기이다. 당시를 살아낸 이들이 느낀 시름과 상실, 박탈, 두려움, 고민을 최대한 생생하게 그리려고 했다. 그제 누군가에게는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 기억일 수 있지만, 그걸 되짚으면서 다시는 이런 불행과 위기를 그런 식으로 흘려 보내지 않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다잡았다.”

●“우진 씨, 정말 고마워요!”

영화는 네 인물을 축으로 이야기가 진행된다. 김혜수가 위기를 타파하려 분투한다면, 유아인은 위기를 기회 삼아 위험한 베팅을 시작하는 젊은 금융맨이다. 가정과 직장을 지키려는 소시민 허준호, 위기 속에 욕망을 드러내는 재정국 차관 조우진도 있다. 여기에 국제통화기금 IMF 총재 역을 맡은 프랑스 출신의 세계적인 배우 뱅상 카셀의 존재는 영화를 향한 기대를 높이는 대목이다.

김혜수 역시 함께한 배우들과 자극을 주고받았다. 특히 이번엔 처음 만난 조우진을 향해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다. 후배이지만 그로부터 받은 자극과 에너지가 상당히 그 여운이 지금껏 이어지는 듯했다.

“사사건건 내 의견을 가로막는 고위간부 조우진과 부딪치는 장면이 특히 많았다. 조우진에게서 불꽃을 봤다. 연기 잘하는 좋은 배우와 같이 연기하는 건 배우에게 굉장히 소중한 기회이다. 조우진의 턱을 많이 봤다. 환상의 시너지를 발현할 기회였다고 할까. 모두가 그의 연기에 매료될 수밖에 없을 거다. 우진 씨, 정말 고마워요. 하하!”

극장이 쏠아지자 제작보고회에 함께한 조우진은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신나는 연기 경험이었다”고 돌이키며 “‘갓혜수’님께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국가부도의 날’은 11월28일 관객을 찾는다. 개봉까지 약 한 달이 남았지만 김혜수는 관객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을지 벌써부터 궁금해 했다.

“우린 누구나 살면서 크고 작은 위기에 직면한다. 수없이 많은 위기도 겪어왔다. 정직하게 위기를 대면할 마음의 준비가 돼 있을까. 회피하고 외면한다면 그제 곧 재앙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본다. 위기를 겪는 내 삶을, 크게는 우리 사회를 한 번쯤 환기시킬 영화이길 바란다.”

이해리 기자 golf1024@donga.com

연예뉴스 HOT 5

워너원, 내달 19일 새 앨범 컴백

‘음주운전 물의’ 호란, 활동 재개

영화 ‘안시성’ 손익분기점 돌파

밀리언마켓, SM 레이블로 합류

훈 “초등생 폭행 피해자는 내 가족”

그룹 워너원이 11월19일 컴백을 확정했다. 워너원은 24일 ‘워너원 2018.11.19 커밍순’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티저 사진을 공개하고 컴백 일정을 발표했다. 6월 발표했던 ‘1÷x=1(UNDIVIDED)’ 이후 5개월 만이다. 이날 공개된 티저 사진에는 매번 콘셉트 오브제로 활용됐던 카세트테이프가 담겨 있으며, 줄의 시작과 끝이 하나로 이루어진 모양을 띄고 있다. 워너원은 6월부터 ‘원 : 더 월드’라는 이름으로 월드투어에 돌입해 3개월 동안 14개 도시에서 팬들을 만났다. 12월 활동 시한에 다다른 워너원은 새 앨범 발표 후에는 다양한 활동을 벌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고 자숙한 가수 호란이 2년 만에 활동에 나선다. 호란은 24일 오후 6시 음원사이트에 새 싱글 ‘바랍니다’를 공개했다. 신곡은 땡고 리듬 기반의 블루지 록 장르다. 프로듀서 SAZA최우준이 작업했으며, 베이스 정영준, 드럼 이도현, 퍼커션 김정규 등이 힘을 실었다. 호란은 2016년 9월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내고 사과한 뒤 활동을 중단했다. 앞서 2004년과 200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음주운전 삼진아웃’ 제도에 따라 면허 취득도 2년 동안 제한됐다. 올해 초 ‘유리피안 재즈 trio로 내한공연’에 게스트로 나온 등 무대 위주로 간간히 활동해왔다.

‘안시성’이 극장 손익분기점을 돌파했다. 배급사 NEW에 따르면 ‘안시성’은 23일 542만606명을 끌어 모으며 손익분기점(누적관객 541만 명)을 넘었다. ‘신과함께-인과 연’에 이어 올해 개봉한 한국 영화 중 흥행 2위 기록을 달성했다. 9월19일 개봉한 ‘안시성’은 동아시아 전쟁사에서 가장 극적이라고 평가받는 안시성 전투 88일을 그린 액션 블록버스터다. 순제작비 185억원, 총제작비 약 220억원이 투입됐다. ‘내 갱배 같은 애인’(2010), ‘찌라시: 위험한 소문’(2014) 등을 연출한 김광식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배우 조인성·남주혁·박성웅·배성우·엄태구·박병은·설현 등이 출연했다.

가요기획사 밀리언마켓이 SM엔터테인먼트 레이블로 새 출발을 알렸다. 밀리언마켓은 “SM의 지분 투자를 통해 레이블로 합류하게 됐다. 앞으로 SM과 협력해 음악 사업을 펼쳐 글로벌 뮤직 레이블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밀리언마켓에는 독특한 음색과 프로듀싱 능력을 겸비한 수란을 비롯해 ‘팬시차일드 크루’ 소속 힙합가수 페노메코, 버클리 음대 출신 R&B 싱어송라이터 찬슬러, 래퍼 우태은, 엠넷 ‘고등래퍼2’ 출신 오담을 등이 소속됐다. 또 래퍼 쿠키가 소속된 ‘ATM 서울’, 프로듀서 텐조를 수장으로 ‘리듬엔트’를 산하 레이블로 영입하는 등 다양한 장르의 뮤지션을 아우르고 있다.

그룹 유키스 훈이 폭포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의 피해자가 자신의 가족이라고 밝히며 안타까운 상황을 전했다. 훈은 24일 SNS에 “전남 목포 OO초등학교에서 한 아이가 동급생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뇌사 상태다. 이 아이는 만약 의식이 돌아와도 3~4세 정도의 정신연령이라는데 가해자 측 부모가 중환자실 앞에서 웃고 떠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하다. 뇌사상태인 아이는 내 가족이다”라는 글을 올렸다. 목포경찰서에 따르면 23일 오전 한 초등학교 복도에 5학년 A군(12)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군은 병원에서 옮겨졌으나 의식불명 상태다.